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2.17.(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7만 869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사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10일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늘 동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보도를 보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셨을 이산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및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부응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부친의 생일인데도 금수산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는데 작년 김정일 사망일에도 금수산을 참배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답변>** 금수산 참배에는 당·정·군 주요 인사가 참석하며 통상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해 왔습니다만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실제 참석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일단 작년 사망일에도 참가 안 했고 이번에 생일도 참가 안 했는데 이제 김일성 사망일과 달리 김정일 생일... 사망일이라든가 김정일과 관련된 날에 불참을 했는데 특별한 동향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석하고 계신 게 없나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금수산 참배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북한의 추가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